



마린보이 작가가 만든 할머니 로봇이 등장하자 사람들은 술렁거렸다. 사람 모습과 흡사한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과 미소에는 애진함이, 고물이 가득 찬 무겁고 더러운 수레에는 삶의 고단함이 느껴졌다. 작가는 인간이 특정 대상을 대할 때 느끼는 연민의 정이나 사람마다 다른 공감 능력에 대해 고물 수레를 실어 나르는 로봇 할머니를 통해 실험한 작품이어서 메미른 우리 시대를 돌아보게 하는 AI 시대의 작품이었다.

AI 할머니의 고물 수레

전국문화사진초대작가회
회원 정홍규